

환경인의 자세



이 기 철
국립환경연구원장

필지약력

- 1962. 2. 하동고등학교 졸업
- 1967. 2.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약학사, 약사)
- 1974. 2.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약학석사, 약사)
- 1987. 2.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약학박사, 환경화학 전공)
- 1967. 4. 10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연구생
- 1970. 9. 5 국립보건원 약품부(보건연구사보)
- 1974. 4. 20 국립보건원 약품부(보건연구사)
- 1977. 7. 1 국립보건원 위생부 수질보전과(보건연구관)
- 1978. 8. 14 국립환경연구소 수질분석과(보건연구관)
- 1980. 2. 16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해양환경연구팀장
- 1980. 9. 17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수질화학연구팀장
- 1990. 1. 12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장
- 1998. 10. 19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 2000. 6. 23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장
- 2001. 9. 3 국립환경연구원장(현재)

청년기였던 '60년대의 나의 생활과 지금 청년기에 있는 아들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실감케 된다.

내가 커피를 처음 마셔본 것은 월남전에 참전한 친척형의 선물꾸러미인 레이션 박스에 들어 있던 미군용으로 기억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커피는 '헤이즐넛' '블루마운틴' 등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우리 세대의 젊은 시절에는 어둡고 격리된 곳인 다방을 선택의 여지없이 만남의 장소로 찾아야 했으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밝고 탁 트인 커피전문점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어폰 문화에 흠뻑 젖고, 컴퓨터를 친구 삼아 젊음을 보내고 있는 N세대의 삶은 나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심한 것을 느낀다. 또한 60년대에는 '환경' 보다는 '공해'라는 낱말이 울산 등 일부 공단지역에서 처음 회자(膾炙)되었으며, '공해'는 주로 공장의 수질 오염과 대기오염에 한정지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해결하여왔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환경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의해서도 새로운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화학물질에서 유래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 다환 방향족 유기화학물질(PAHs), 잔류성 유해화학물질(POPs)뿐만 아니라, 전자파, 자기장에 의한 위해성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90년까지는 수인성(水因性)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세포 수준의 미생물인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

지금은 여과성 미생물로 광학현미경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극초 미생물인 바이러스의 병원성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21세기는 학문의 발달 속도도 반도체의 발달 속도에 버금갈 정도로 빠르고, 새로운 환경오염문제 또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학문적 전공 또한 세분화되어 학문의 영역은 좁고 전문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복잡 다양한 환경오염문제의 학문적 접근은, 전공자에 의한 전문성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연관된 다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와, 부단한 이론적 실증과 경험적 검증을 통해 문제의 제기과 해결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세기를 뛰어 넘는 장기간의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환경오염에 대한 일부 학자의 문제제기는 학문의 정도(正道)를 벗어나 과대 포장되어 국민을 필요이상으로 불안하게 하는 측면은 없는 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보다 한 세기 앞서 산업화 과정을 거친 일본이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3대 공해병 중의 하나인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인 수은에 대해 설정하는 있는 기준을 보면 하천, 호소 등 수역에서의 환경기준을 0.5pp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호소유역에 수은의 오염요인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1ppb이하로 수은의 허용농도를 2배까지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져 법(日本 水質汚濁防止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배경을 보면, 수은의 위해를 방지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특히 인간의 안전한 건강 유지를 위해 환경기준을 0.5ppb이하로 엄격히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실용화된 최첨단의 수은분석기술인 환원기화에 의한 원자흡광광도법으로는 환경기준이 요구하는 0.5ppb 까지를 오차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분석기술의 한계를 감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환경오염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이들의 자세를 참고로 하여,

2000년대 이후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환경인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 지 제언 해 본다 **環境保全**

